

FOCUS

회화, 세계의 비밀

니키 노주미展 2018. 11. 21~1. 13 바라캇컨템포러리
피오나 래展 2018. 11. 23~1. 20 학고재청당

니키 노주미와 피오나 래의 작품은 유화라는 기조 아래 동서고금의 기법을 참조, 종합했다는 점과 다양한 층위의 이미지가 공존하며 그 관계 속에서 서사를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영미권에서 거주하고 활동하지만, 중동이나 아시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면서 체득한 '이국적인' 요소 또한 공통적이다. 지평선이 보이는 대지 한가운데 잡초를 배치한 니키 노주미의 작품과 봄날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듯 감미롭고 환상적인 피오나 래의 작품은 미소한 존재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운다. 그들의 그림은 작은 존재를 기념비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일상적인 차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주시하게 한다.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또는 명백해 보였던 것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그 작가들의 성향이나 취향일 뿐 아니라 정치이기도 하다. 물론 예술은 다소간 강제성이 있는 법적 효력이 아니라, 스며들 듯 행해지는 공감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권력은 불확실한 곳에서 작용하는 것이니만큼 예술과 권력은 그리 외재적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예술과 권력은 쉽게 연결되고 쉽게 단절된다. 고국 이란의 정치적 압박을 피해 미국에서 작업하고 있는 니키 노주미는 정치인을 상징화해 작품에 나타내기도 한다. 재현적 요소가 없는 피오나 래의

작품에도 날렵하고 경쾌한 화면 가운데 폭발적인 활기로 충전된 드라마틱한 사건이 암시된다.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한데 모여 있는 장(場)인 화면에서 경쟁과 투쟁, 공존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장에서 다양한 요소의 균형은 아슬아슬하게, 작업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 눈에 잘 띄지 않는 그 작은 존재들은 대개 무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소재 및 주제의 선택은 작가의 지향을 선포하는 셈이다. 또한 그들이 선택한 그림이라는 형식 또한 스펙터클의 시대에 그 존재감이 의심받고 있는데, 왜 회화인가에 대한 질문은 이전에는 굳이 자문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의 화가는 그 매체를 '아직도' 고수하는 이유를 각자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질문에 반드시, 적어도 설득력 있는 대답이 가능해야 회화도 '현대미술'에 속할 수 있게 된다. 회화는 현재에도 조형예술의 기본이 되고 있고, 근본적인 것에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므로 회화는 늘 새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근대 시기 '회화는 결국 평면이다'라는 식의 정의는 사진과 영화의 발명 및 여타 시각 환경의 급변을 맞이한 화가와 이론가의 대답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이었지만, 굳이 화가가 평면을 강조하지 않아도 실제로 세상은 너무 평평화되어 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회화/그리기를 포함하여 모든 실재적인 것들이 허구화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여야 한다. 평평한 세계가 평등한 세계인가를 문제로 삼은 회화는 자기도 모르게 세계의 비밀과 마주한다. 모더니즘의 대답은 회화를 관념화해 단지 감성적인 것에 호소하는 경향보다 더한 악습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니키 노주미와 피오나 래의 작품은 그림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형식적 효과와 확장성 있는 서사를 가진다. 그들의 끝에서 만들어지는 형태와 색채의 아름다움은 '이런 것이 바로 그림이구나'하는 새삼스러운 깨달음과 기쁨을 준다. 그림은 이론적 선명성이 아니라, 이러한 멋진 그림들에 의해 존재 의미를 부여받을 것이다.

권력에 대항하는 생명

천정이 높은 매력적인 전시공간 바라캇컨템포러리에 니키 노주미의 회화작품 10여 점이 걸렸다. 개인전 제목 <Please Sit Down>은 국내외 영향력 있었던 작가를 자신의 권력 아래 두고자 했던 혁명기—겉으로는 혁명이지만 왕정(王政)—이란 당국과의 불쾌하고도 두려운 만남에서 연원한다. 결국 국가는 이 '불온한' 작가를 추방했지만, '앉으시오!'라는 자못 정중한 듯한 명령어는 마치 권력이 정해 준 자리에 암전히 있어야 할 것을 종용하는

니키 노주미 <풍경으로의 길>
캔버스에 유채 244×305cm
2015_이란계 미국작가 니키
노주미(Nicky Nodjoumi)의
개인전 <Please Sit Down>이
바라캇컨템포러리에서 열렸다.
작가는 40여 년간 권리과
폭력의 관계를 주제로 정치적
상징들과 일상 사물이 결합된
이미지를 제작해 왔다.



피오나 래 〈백설공주는 자신의 세계에서 달을 꺼내 올린다〉 캔버스에 유채
183×129.5cm(부분)
2017. 학고재갤러리가 개관 30주년을 맞아 청담동에 지점을 마련했다. 개관전으로 흥룡 출신 작가 피오나 래(Fiona Rae)의 국내 첫 개인전을 열고 2014년 이후 최근까지 작업한 신작 추상화를 소개했다.

듯하다. 권력이 체계적으로 재현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대상화되어 원근법상의 꼭짓점 같은 전능한 지점에서 파악될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적 도상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니키 노주미의 작품은 그러한 일괄적 시점을 해체한다. 그의 작품은 콜라주처럼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의 간극이 크며, 이러한 간극으로부터 의미가 생겨난다. 유파라는 방식은 이러한 간극이 너무 벌어져서 무의미로 해체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조성한다. 전시와 동명의 최근 작품을 보면, 네발짐승인 양이 불편하게 서 있고, 두 남자 또는 한 남자의 시차를 둔 동작이 어색하게 공존한다. 앉기에 너무 작아 보이는 의자, 뒤집힌 차, 무엇보다도 가면 쓴 남자가 들고 있는 긴 막대기는 불길하다. 희생양의 하반신은 벌써 붉은색 고기로 변해가고, 작은 의자에도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

니키 노주미의 작품에 잘 나타나는 화면 하단의 또 다른 세계는 권력이 밀실을 통해서 증식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권력을 가진 남자의 하의는 피에로 복장이다. 권력자의 일부는 때로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추상화된다. 그것은 이 익명의 남자가 더 큰 권력을 재현하는 꼭두각시임을 알려 준다. 작품 〈오후의 차〉는 심문을 받기 위해 앉아야 하는 고문 의사, 또는 심문하기 위해 앉아야 하는 권위의 의사, 그 의자를 사이에 두고 봉을 쥔 남성/권력자와 벌거벗은 여성의 조우는 주체와 타자가 만나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이러한 대조 항은 문명과 자연, 지배와 피지배 등 서로 연결망을 이루는 일련의 대조 항들을 끌어들이며, 화면에 가득한 얼룩이 비극의 결과물로 다가오게 한다. 사고를 암시하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을 배경으로 로드킬 당한 것 같이 산산이 부수어진 동물을 전경화한 작품 〈강요된 침묵〉은 문명의 질주 때문에 오늘도 소리 없이 희생되는 자연을 거대한 크기로 대면서킨다. 작품 〈무제 #3-환경 시리즈〉는 풀 한 포기를 화면에 가득히 일으켜 세운다. 이 기념비적인 존재는 국가를 비롯해 억압적 권력에 대항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 니키 노주미의 작품에서 자연은 '주권과 대립하는 벌거벗은 생명'(조르조 아감벤)으로 나타난다.

자유로운 여성의 노래

한국 최초로 소개된, 그것도 2018년에 제작한 최신작이 대거 포함된 피오나 래 개인전은 한국어 발음과 우연찮은 비슷함으로 한겨울에 기다려지는 봄의 설렘 같은 것이 있다. 〈공중으로 녹아들다〉처럼, 피오나 래의 작품은 열은 안개나 미풍, 또는 구름 같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미시적인

사건을 닮았다. 로코코 시대의 감미로운 하늘 같은 바탕 면 안팎으로 강약이 선명한 선과 점이 자리한다. 녹아드는 것이 있으면 생겨나는 것이 있고, 이 쌍방향의 과정은 작품 속에서, 그리고 작품들 사이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소멸한다. 파스텔 톤의 부드럽고 따스한 색감을 가지는 작품들은 인어공주나 백설공주 같은 동화 속 캐릭터를 적시한 제목을 가진다. 상상이나 동화가 그렇듯이, 세계와의 직접적 만남이 아닌 중간의 완충지대에 해당하는 부드러운 보호막이 있다. 〈옛날 옛적에 인어의 노래를 듣다〉에는 인어가 등장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 노래나 목소리, 또는 속삭임을 듣는 주체도 없다. 대신 '옛날 옛적' 같은 모호한 시공간과 노래/듣다에 관련된 추상적 감각, 그리고 고삐 풀린 무한대의 상상이 있다. 부드러운 색감에 포인트를 주는 가느다란 직선과 곡선은 뭔가 탁탁 터지는 듯한 경쾌한 감각이 있다. 만약 거기에 인어가 있다면 그것은 인어가 물속을 헤치고 지나가며 남긴 소리나 향기, 또는 신체의 분비물 같은 것이다.

백설공주나 인어공주가 여성 캐릭터임을 떠올릴 때, 피오나 래의 작품에서 여성성이 발견되는 것도 분명하다. 이미지가 추상적이기에 작가의 의도가 보다 직접적으로 읽힐 수 있는 것은 긴 작품 제목인데, 그러한 제목들에 여성성을 함축하는 어휘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 가령 〈백설공주는 자신의 세계에서 달을 꺼내 올린다〉 같은 제목이 그렇다. 이 전시의 서문을 쓴 필자 길다 월리엄스는 피오나 래의 작품을 설명하면서, 잭슨 폴록을 비롯한 "정력적인(virile)"(평론가 매니 파버) 남성화가와 비교하고, '남성답지 못한(effeminate)' 경향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18세기의 철학자 드니 디드로, 그리고 "거세하지 않은 그대로의(non-castrated) 감정표현을 풀어놓는 것"(평론가 클레멘트 그린버그)을 권고한 남성 이론가들의 기준에서 벗어남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 일종의 언어인 예술은 자연이 아니라 문화이지만, 결국 작업이라는 것이 젖 먹던 힘까지 짜는 행위이다 보니, 작품에서 남성성/여성성을 찾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대체로 작가는 자신의 작품이 '보편적'이기를 원한다. 특정 성으로 자신의 작품을 환원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피오나 래는 자신의 본성과 감각을 굳이 위장하려 하지 않으며, '누가 이기나 보자'면서 가공의 싸움을 심각하게 수행하는 이들과 달리, 경쾌하게 콧노래를 부르며 제 갈 길을 가는 천연덕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피오나 래의 작품의 특징인 가벼움은 경박함이나 유치함이기보다는 자유로움으로 느껴진다.

/ 이 선영